

“창조적 파괴” “총선패배 빌미”... 호남민심 기대·우려 교차

“설 연휴 전까지 창당”...안철수 신당 로드맵 발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 신당 창당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이 야권의 창조적 파괴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야권 분열로 인한 총선 패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이 야권의 신당 세력 모두가 함께 하는 제3세대 통합 신당이 아닌 독자 신당 창당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적 감동 견인에 동력이 부족하고 또 다른 패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초스피드 창당=안 의원은 내년 2월 설 연휴 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40일 내에 신당을 만들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정은 인재 영입을 통한 세 불리기와 후보 공천 작업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총선 두 달 전에는 창당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확보와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의원이 내년 2월 15일까지 교섭단체 규모의 신당을 구축할 경우, 8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설 명절 이전으로 창당 시점을 제시한 것은 명절 연휴 여론을 잡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 목표를 개헌 지지선(100석)으로 설정한 것은 신당을 제1야당으로 이끌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강고한 위치를 굳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우월한 과반을 차지해 야권 전체가 패배하고 신당이 제3당에 머물 경우, 분열의 책임론에 직면하면서 안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담보하기 어렵다. 사실상 신당의 성공 여부는 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는 셈이다.

◇호남 민심이 관건=안 의원 신당 창당 성공의 첫 단추는 호남 민심의 지지 여

40일내 초스피드 창당 목표는 개헌 지지선 확보 호남여론에 성패 달려

부다. 호남 민심은 수도권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단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과 안철수 신당을 저울질하며 어느 진영이 정권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느냐를 놓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남 민심의 지지를 견인할 경우, 안철수 신당은 내년 총선 승리의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독자적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호남 민심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을 극복하고 대체할 야권 신당 세력들이 혁신과 통합을 기치로 제3세대에서 모여 말 그대로 ‘통합 신당’을 구축해야 한다는 흐름과 기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독자 신당 자체가 모든 야권 신당 세력을 나를 중심으로 모으려는 또 다른 패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탈당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모두 함께하는 것도 그리 탐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들 자체가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신당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냉소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및 통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그리 반응이 좋지 않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완승 구도를 막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세력화 기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 의원들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황주홍·문병호·안철수·김동철·유성엽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신당 로드맵

- 12월 4주 창당심우준비단 가동(단장: 이태규)
- 12월 22일 대전 지역 민생·경제 현장 방문
- 12월 27일 집중 토론회 개최 (장장 정책 마련, 새정치와 비전 제시)
- 2016년 초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시도당 구성 시작
- 2월 설 이전 창당 완료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千 당선으로 서막...安 탈당으로 본격화

<천정배> 리뷰 2015 <안철수> ⑥ 호남발 야권재편

새정치 계파 분열이 씨앗 총선 일여다야 대결로 통합·연대로 기회될 수도

올해는 야권에겐 잇기 힘든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 수준의 균열을 내면서 야권 재편의 서막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판결에 따라 강제 해산되면서 맞은 야권의 위기는 올해를 기점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29일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는 그 서막의 시작이었다. 그 선거에서 천정배 후보는 새정치연합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무소속으로 출마, 52.37%의 득표율로 29.80%에 그친 새정치연합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천 의원은 보궐선거 전후로 ‘호남 정치 복원’을 내걸고 신당을 만들어 야권 재편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다. 때문에 모든 언론은 호남발 야권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 관측을 내놓았다. 실제로 천 의원은 지난 9월

20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으며 지난 18일에는 창당준비위 구성을 마쳤다. 또 지난 7월16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9월22일엔 박주선 의원이 각각 새정치연합을 탈당하며 신당 창당의 길로 나서면서 야권 재편 작업이 본격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3명의 탈당파는 단일 노선을 형성하지 못했고 가장 먼저 신당을 얘기했던 천 의원마저 의욕과 달리 만족할만한 한 세 규합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야권 재편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나온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 탈당과 21일의 신당 창당 선언은 야권 재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했다. 또 기존 신당 세력이 모두 호남 출신이어서 받았던 ‘호남 자민권’이란 우려와 비판을 벗을 수 있는 명분도 갖게 했다.

또 지난 17일엔 안 의원 탈당 이후 처음으로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 등 3명이, 20일엔 김동철 의원이 각각 탈당을 결행, 신당행을 선언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1~2월까지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안 의원은 이들 탈당 의원과 기존 신당 추진 그룹을 한데 모아 야권 재편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제1야당이 흔들린 데는 지난 2011년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한 후 ‘선거만 하면 지는 정당’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총선과 대선은 물론이고 재보선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참패했다. “승리하는 DNA를 잊어버렸다”는 혹평까지 받았다. 특히 천 노(진노무현) 세력이 주도한 선거는 한번도 이긴 적이 없었고 그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당내 비노·비주류 세력으로부터 ‘후안무치’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당내 분란의 불씨를 키웠다.

하지만, 이 같은 야권의 위기는 재편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견해도 많다.

정치평론가인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는 21일 “호남에서는 야당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전략적 연대를 할 경우 오히려 새정치연합 단일대오 때보다 야권이 총선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있다”면서 “또 비록 야권 분열로 총선에서 지더라도 총선 후 전면적 야권재편에 성공해 오히려 대선에서 이길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텃밭·비주류 동요 가속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텃밭인 호남과 비주류를 중심으로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이 전남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의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탈당하고 나머지 새정치연합 소속 광주 의원 중에서 강기정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탈당 쪽으로 마음이 기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 텃밭에서부터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21일 새정치연합 소속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강기정 의원, 전남에서는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근 의원과 우윤근, 신정훈 의원 정도가 확실한 잔류파로 거론된다. 나머지 의원들

광주 5명 추가탈당설 솔솔

김부겸·박영선 불만 쏟아내

박지원·김한길 행보 주목

중 상당수는 심각하게 탈당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에 비주류인 김부겸 전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 대표는 비노나 비주류에 속하는 분들을 견제하지

않은 세력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한 시각을 빨리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문 대표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마음을 비우는 자세의 결단이 필요하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호남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전 대표의 거취가 후속 탈당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두 인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일정 시점에 대규모 탈당이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1월 중순, 2월 대규모 탈당설마저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서진종합건설 과

엘리체

(주)서진종합건설은 여러분의 희망을 건설합니다. 창조적인 혁신설계로 입주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성실시공으로 안전한 주거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주)서진종합건설은 15년동안 지연됐던 광주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서, 지난 8월 사업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쌍촌엘리체아파트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촌아파트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성실시공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PROJECT.1
쌍촌엘리체 2015년 12월
602세대 분양

PROJECT.2
화정엘리체 2016년 상반기
400여세대 분양예정

PROJECT.3
금호엘리체 2016년 상반기
대단위단지 분양예정

PROJECT.4
보령엘리체 2016년 하반기
475세대 분양예정

서진종합건설과 함께하는 계열사

(주)서진종합건설 [아파트시공, 건축/전기/토목/조경공사]

엘리체 레저산업 [골프장운영]

에스이앤씨(유) [공동주택시행사]

동일산업주식회사 [레미콘/아스콘/세공제 혼합액 제조판매]

(주)경방건설 [토목철근, 콘크리트시공]

SK (주)에스케이공업 [아스콘 품질 개발]

(주)서진통력 [풍력발전소운영]

서진철강 [철근가공/철근 유통업]